

이번 학기 우리신문은 학부 이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에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첫 번째로 고고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고아라(박사 2기), 이진형(박사 1기) 씨를 만났다.



이진형

고아라

청년극우 연속기획 마지막 회차로 극우 정서의 중·장기적 위험 요소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지 살펴본다.

대학주보

양 캠퍼스 학생회 보궐 선거 시작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양 캠퍼스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지난 12일 '2026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보궐선거 후보 명단'을 공고했다. 이번 국제캠 보궐선거에선 ▲총학생회 [루트] ▲전자정보대학 [Vector] ▲응용과학대학 [CAMP] ▲국제대학 [Leads] 선거운동본부가 임후보 명단에 올랐다.

국제캠은 오는 23일까지 선거운동이 이뤄지며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국제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46조에 따라 투표기간이 지났음에도 투표율이 50% 미달일 경우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투표가 실시된다. 1회 연장 투표 이후에도 투표율이 미달일 경우엔 중선관위와 각 후보 측이 합의를 통해 추가 연장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제캠은 중선관위가 선거를 일괄 관리하는 반면 서울캠은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서울캠은 지난 10일 선거 공고가 발표됐으며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은 16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임후보자 자격 심사 및 후보자 등록 명단 공고는 19일 12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운동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율이 50%에 미달될 경우 투표 기간은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1차 연장되며 이후에도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3일 오후 6시까지 최종 투표 기간이 연장된다.



양 캠퍼스 동아리 박람회 열려

동아리 박람회가 지난 4일 서울캠 청운관 앞 광장을 시작으로, 11일에는 국제캠 대운동장에서 각각 이틀간 개최됐다. 양 캠퍼스 합쳐 80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참여해 학생들로 북적였다. 네오르네상스관 앞에선 춤, 노래, 악기 공연이 활기를 더했다.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이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느낌을 줬다. (사진=대학주보 DB)

지난해 대외연구비 수주액 1950억 역대 최고 실적...배경은 지원과 집중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지난해 우리학교의 대외연구비가 1950억 원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학협력단 설립 이래 자체 최고 실적이다. 대외 연구 과제 실적은 대학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대학의 재정 확충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연구 현장에 있는 교원을 만나 작년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와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최근 3년간 대외연구비는 ▲1671억(2023) ▲1672억(2024) ▲1950억(2025)으로 증가 추세다. 단, 2025년 실적은 2026년 4월 1일자 교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해 추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대외연구비 실적은 2024년 대비 약 278억 원 증가하며 1년 새 16.6%나 늘었다.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 흥인기 단장은 "R&D 예산 삭감이 있어 조금 낮게 집계되긴 했지만 삭감되기 전보다도 연구비가 늘었다"면서 "여태까지 우리학교 대외연구비 실적으로는 산학협력단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

치"라고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 도입 교원 행정 부담 최소화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꼽았다.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에 교원이 직접 각 부서에 요청·수행해야 했던 확약 업무를 산학협력단 R&D기획팀이 전담하는 제도로 2024년 말 도입됐다. 사업 수주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해 교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흥 단장은 "사업을 신청할 때 제안서를 쓰고 학교 지원이나 지자체 협력을 요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산학협력단이 지원해 교수님들은 최대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도 없이 교수님들께 대외 연구비 수주를 독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24년 3월 산학협력단장 부임 이후부터 원스톱 서비스 기획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원들은 특히 대형 연구 과제 지원 시 원스톱 서비스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

2 종합

한 과목 늘었지만 외대 영어강의 졸업문턱 그대로 “영어강의 절대 수 부족...” 학교 측 “융합전공 통해 확대”

강다운 기자 rkdekabs@khu.ac.kr

【국제】외국어대학(외대)에 공통 영어강의 한 과목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졸업 조건을 채우기 불리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대 권세은 학장은 “외국어대학 7개 학과를 아우르는 융합전공을 만들 것”이라며 “융합전공 내 영어강의 신설을 추진해 영어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2008학년 이후 신입생은 ‘영어강의 의무이수제’에 따라 각각 전공과목(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영어강좌 3과목, 편입생의 경우는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요건이 충족된다.

지난해 2학기 기준 외대 내 개설된 영어강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14개 ▲프랑스어학과 0개 ▲스페인어과 2개 ▲러시아어학과 0개 ▲중국어학과 0개 ▲일본어학과 1개 ▲한국어학과 1개 수준으로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를 제외하고는 ‘영어강좌의무이수제’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외 학과들은 이 점을 감안해 교양 영어강의도 인정된다.

하지만 교양 강의의 난이도 문제, 타 단과대처럼 전공 학점 이수 및 영어강의 졸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불



권 학장은 “내년 3월 신설 목표인 융합전공 내에서 외대 7개 학과와 모두 연관 있는 분야의 영어강의를 개설해 외대 영어강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원희재 기자)

만이 있어왔다. 고수민(일본어학 2025) 씨는 “외국어대학 내 영어 전공 강좌가 거의 없어 영어강의 의무 이수 조건을 채우기 어렵다”며 “국제대학 강의나 외국인 학생이 많은 수준 높은 교양을 들어야 해서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부터 외대 학

생회를 중심으로 공통 영어강의 개설 논의가 이뤄졌다. 외대 윤동현(중국어학 2022) 전 학생회장은 “전공 과목을 들으며 영어과목 이수 조건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였다”며 “외대 학생들이 공대, 전정대 등 타 단과대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지며 외대 공통 영어강의 한 과목이 개설됐다. 개설된 강의는 ‘빅데이터언어학’이다. 권 학장은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분석을 외대 모든 과

교육과정에 전공 선택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언어학과 접목한 강의”라고 설명했다.

해당 강의는 수요가 높아 기존 계획된 3~40명의 수강 인원에서 약 20명 가까이 증원됐다. 권 학장은 “처음에는 과목 수요가 없어 폐강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는데 오히려 인기가 많아 기존 계획보다 많은 약 56명의 학생이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학과 별 특성이 상이해 공통 강의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통 영어 강의는 한 과목만 개설했다”고 덧붙혔다.

그럼에도 외대 학생들이 영어강의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를 제외하고 이번 1학기 외대에 개설된 영어강의 수는 3개로, ‘빅데이터언어학’ 강의가 신설됐음에도 지난해 2학기(4개)보다도 적다.

외대는 향후 융합전공 및 융합전공 내 영어강의 신설을 통해 자체 영어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 학장은 “내년 3월 융합전공 신설을 목표로 현재 교육 과정을 구상 중에 있다”며 “외대 7개 학과들과 모두 연관 있는 분야의 강의를 개설해 영어로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 상에서 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주보

제 75기 신입기자 2차 모집

서류 제출 마감 **3.22**

1차 합격자 발표 **3.23**

면접 **3.24-25**

지원자격

경희대학교 양 캠퍼스 재학생,
유학생, 복학생
취재팀-1,2학년 / 미디어팀-1,2,3학년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모집부문

취재팀 (0명) - 학내 여러 사안과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자
미디어팀 (0명) - 영상 제작 및 포토샵이
가능하거나,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활동혜택

성과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자 개인 명함 지급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3학기 이상 활동시 활동증명서 발급



지원하기

경희대학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내 지원서 작성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시 분야 선정 마이크로디그리 기반으로 실무 경험할 수 있어

서러수 기자 sooxoosoo@khu.ac.kr

우리학교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인공지능 분야에 선정됐다.

학생들은 기존 학점 체계와 연계되는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교과와 비교과 교육을 연계한 몰입형 교육 프로그램 ▲기업과 협업한 교육 과정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 7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과 개편과 일부 교육 과정은 이번달부터 시행돼 총 9개 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체의공학과)가 참여한다. 이외 학과도 추후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 기반 교육 과정이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교과와 비교과 교육을 결합해 특정 직무 역량을 빠르게 인증하는 체계다. 우리학교는 초급 7개, 중급 29개, 고급 8개로 총 44개의 세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설계했다.

학생들은 몰입형 교육과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과 프로젝트 수행을 포함

하고, 학생들은 기업의 요구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얻는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기존 학점 체계와 연계된다. 학생들은 정규 교과목을 수강해 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함께 이수하면 별도의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졸업 학점과 별도로 특정 분야의 전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교과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수강신청 사이트도 구축될 계획이다. 해당 사이트에선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수강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비전공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코딩이나 AI 경험이 없는 학생도 초

급 과정으로 기초 역량을 쌓고, 중급과 고급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 초급 과정을 밟지 않고 중급과 고급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방학엔 ‘AI부트 여름 캠프’와 ‘AI부트 겨울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 캠프에선 프로그램 체험과 취업박람회를 연계해 기업과 학생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겨울 캠프에선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방학에 진행될 ‘몰입형 집중 교육’을 통해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다.

사업 예산은 교육 과정 개발과 운

영, AI 실습 인프라 구축, 학생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 부학장은 “학교 교과 교육만으로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AI 실무 역량을 충분히 익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몰입형 교육을 경험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실습과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AI 관련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면에서 계속 →

물리학과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예전에는 연구 과제 계획서를 쓰는 것만으로도 바쁘게 연구처, 총무관리처, 교무처 등 유관 부서를 일일이 찾아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 여부를 협의해야 했다”면서 “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학교 지원확약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 보내면 산단에서 유관 부서 확인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어 과제 지원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화학공학과 김정(화학공학) 교수 또한 “연구 과제를 신청할 때 항상 산단과 함께 한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대부분 준비해 주고 과제 계획서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주어서 편하다”고 말했다.

대형 연구 과제 집중 전략 2024년부터 모니터링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지난해 대형 연구 과제 수주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MRL 과제(연 100억), G-LAMP 사업(연 50억) 등을 포함해 총 59개의 대형 연구 과제를 수주했다. 이 중 5억 원 이상 지원 과제는 44개, 10억 원 이상 지원 과제는 14개다.

홍 단장은 “연구비를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형 연구 또는 국제 공동 연구를 중심으로 수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4년부터 다음 해에 어떤 방향으로 정부에서 관련 대형 과제가 나올지 예상하고 25

년도 연구 과제 지원 계획을 미리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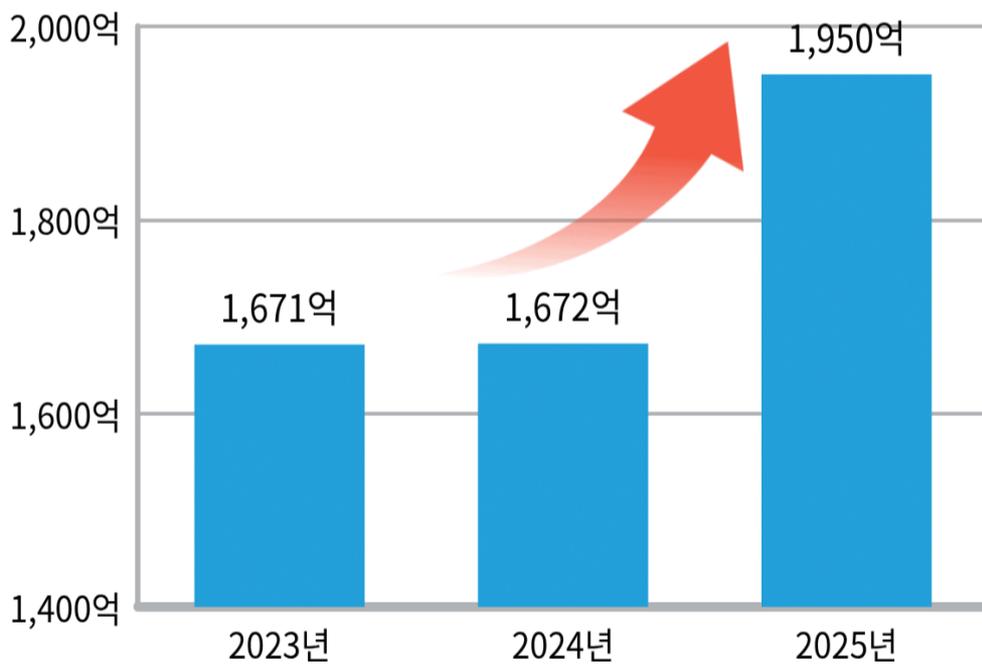
이어 “24년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라도 다음 해에 동일한 공고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매년 나오는 대형 과제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 미리 지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최종 선정이 무산됐던 ‘대학교초연구소(G-LAMP) 사업’은 선정에서 떨어지자마자 다음 사업 신청을 준비하며 1년 동안 실적을 쌓아 지난해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관련기사: 천체·입자·우주과학 연구, 최대 5년간 매년 50억 받아/대학주보 1747호/2025.09.01.)

대학연구지원체계평가서 최고등급 더 큰 비율의 간접비 확보 가능해져

대외연구비 실적은 곧 대학 재정 확충으로 이어진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진행하는 ‘2025 대학 연구지원 체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국 155개

최근 3년간 우리학교 대외연구비 실적



*단, 2025년 실적은 2026년 4월 1일자 교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해 추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부여받은 곳은 우리학교를 포함해 단 7곳 뿐이다.

해당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간접비 고시 비율이 높게 적용된다. 간접비는 교원의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 사용을 비롯해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해 학교 측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어떠한 연구 과제에 선정돼 정부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받게 되면 연구팀이 해당 연구비를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 비율은 학교에 제공되는데, 우리학교는 산학협력단이 이 비용을 관리한다.

우리학교는 기존 23.78%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받았으나 지난해 연구지원 체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올해부터 26.43%의 비율을 적용받는다.

홍 단장은 “산단으로 들어오는 간접비를 활용해 교수님들 연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산학협력단은 향후에도 연구비 수익 증대 및 간접비를 통해 대학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홍 단장은 “연구비 수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확대되는 구조”라며 “현재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정보활용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는 시설 등 학교에 환원되는 비용을 더욱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기획

혐오와 배제, 민주주의와 연대의 위기 불러 ‘청년극우 기획’, 대학의 역할 다시 묻는 계기 되길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청년극우 연속기획 ⑤
극우 정서의 중·장기적
리스크와 해결방안

앞선 4회차는 일상으로 들어온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청년들의 극우적 정서 형성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5회차에선 극우 정서가 사회에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우리 사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생각해본다.

극우 정서 확산으로 우려되는 것
‘민주주의 붕괴’, ‘사회 전반의 불신’

지난 4회차에 걸쳐 ‘정치적 극우’와는 다른 ‘극우적 정서’의 확산 실태를 알아보고 나아가 사회적·환경적 확산 경로와 원인을 알아봤다. 그 모든 과정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극우 정서 심화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신문은 지난해 12월 ‘청년세대의 ‘극우적 언어·행동’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본인이 느끼는 ‘혐오·차별·극우적 언어·행동’의 심각성을 묻는 문항에서 약 58%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극우적 심각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우려를 밝혔다.

극우 정서 심화의 요인으로 엘리트 집단의 문제를 지적했던 임상현(사회정책학) 교수는 민주주의 붕괴를 우려했다. 임 교수는 “극우가 횡행하고 있다는 건 민주주의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최근 정치학계에서 가장 화두가 된 얘기가 ‘민주주의의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김윤철(한국정치) 교수는 ‘사회 전반의 불신’을 우려했다. 타자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 아니라 적이자 위협요인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 설명하며 김 교수는 “신뢰가 없으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갈등만 존재하는 불안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식의 폭력적 양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임상현 교수는 “20대는 윗 세대와 달리 중·고등학생 때부터 토론과 조별 활동을 했다”며 “그런 능력을 활용해 학교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스스로 아젠다를 만들어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

“연대하지 않는 사회는 망할 것”
토론하는 대학 대야

또한 설문조사에서 ‘극우’ 또는 ‘극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혐오·차별적 표현’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나와 다른 대상에 대한 혐오는 곧 사회적 연대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사회정책학) 교수는 “극우적 메시지들은 사회의 연대를 깨는 내용이 많은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연대하지 않는 극단적인 사회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오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대를 깨는 데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학 교육에도 변화의 책임이 따른다.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토론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대학의 역할을 묻자 임상현 교수는 “지금 20대처럼 자유와 개인주의, 평등의 가치를 잘 받아들이는 세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윗 세대와 달리 중·고등학생 때부터 토론과 조별 활동을 했

다”며 “그런 능력을 활용해 학교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스스로 아젠다를 만들어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형진(한국정치학) 교수 또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예전만큼 자유로운 토론이 안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선 교수들이 극우적 발상을 용기 있게 지적하고 고쳐줘야 한다”며 “학생들 또한 교수 찾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상은 컴퓨터 밖에 있다”

설문조사에서 우리학교에는 혐오·차별적 언어·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엔 약 5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은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숙고해볼 것을 권했다.

최 교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어두운 10대를 지나며 또래 집단에서 학습한 것들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우리 사회가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 친구들이 제한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형진 교수는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 학생들에게 매년 ‘세상은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밖에 있다’는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론 “진실과 용감하게 마주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상현 교수 또한 “적들을 다 쓸어버린다면 어떤 사회가 이뤄지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남을 안 좋은 처지로 몰아낼 생각을 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찾는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지우



칩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대학 연구실 장비 도입과 학생 기기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사진=AI생성)

칩플레이션, 두 배 넘게 오른 서버 가격 학생 필수품, PC·노트북 가격도 동반 상승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단가 급등이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칩플레이션(Chipflation)’ 현상이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최근 PC용 범용 D램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23.6% 상승했다. 또한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1분기 모바일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역시 전 분기 대비 각각 50%, 90% 이상 올랐다. 전자공학과 홍상훈(전기전자공학)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생산이 확대되면서 기존 범용 메모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는 각각 데이터의 빠른 처리와 영구 보존을 담당하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이공계열의 고성능 연산 및 연구에 필수적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학은 이러한 필수 인프라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학교에 GPU 및 서버를 납품하는 AI 장비 업체 ‘BARO AI’ 관계자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에 주로 쓰이는 GPU ‘RTX 프로 6000 블랙웰’ 가격은 지난해 약 1,400만 원 선이었지만, 올해 약 15% 상승해 1,6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서버 전체 가격 역시 15~20%가량 올랐으며, RAM 가격은 변동성이 커 정확한 예산 증가분을 수치화하기 애매하지만 서버와 비슷하게 작년에 비해 많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상승에도 구매 수요는 꾸준하다”면서도 “최근 문의를 통해 견적을 확인한 학교 측이 크게 놀라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칩플레이션 여파는 교원의 연구 환경에서 즉각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김수현(컴퓨터공학) 교수는 “비유하자면 과거 가격 폭등 이전에는 GPU 4장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예산으로 3장밖에 구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장비를 확보해 온 교연자 교수와 달리, 연구실 인프라를 이제 막 구축하려는 신입 교수에게 타격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3년에 부임한 전자공학과 임영현(전기전자공학) 교수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가동하려면 서버가 필수”라며 “서버 비용이 예전엔 20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두 배 이상 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서버 가격이 상승하면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와 같은 해 부임한 컴퓨터공학과 장대희(컴퓨터공학) 교수는 “연구 목적이 아닌 일반 컴퓨터를 구입하려 했지만 가격이 2배가 넘

었다”며 “원래 예상한 수량의 절반 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칩플레이션은 연구실을 넘어 일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범용 메모리 단가 상승으로 대학 생활의 필수품인 개인용 PC와 노트북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올해 주요 제조사의 신형 주력 노트북 출고가는 전작 대비 10% 안팎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고성능 모델 가격이 2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대 초반에 형성되며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안종현(전자정보학 2025) 씨는 “작년에 산 노트북이 고장 나서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려 했지만, 작년보다 가격이 80만 원이나 올라서 노트북을 구입하지 못하고 중고 노트북을 구매해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서준영(컴퓨터공학 2025) 씨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다시 사려 했는데 20만 원가량 비싸졌다”며 “전공 특성상 수업 듣는데 태블릿이 필수적이지만 너무 비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입생 전원 ‘인가탐’ 교재 배부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라면 필수교양 ‘인간의가치탐색(인가탐)’ 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서울캠 소속 내·외국인 학생은 청운관 지하 1층 문구 기념품점 옆에서, 국제캠 소속 내국인 학생은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교재를 수령할 수 있다. 국제캠 소속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처에서 배부를 담당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인가탐 교재 배부는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져 온 입학키트 증정을 대신한 것이다. 총장실은 “우리대학의 창학정신과 교양교육의 가치를 신입생에게 전달하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수업에 활용되는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면서 “교재 불법 복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재를 배부받은 신입생 차정화(경제학 2026) 씨는 “키링이나 굿즈를 기대했던 친구들은 살짝 아쉬워했다”면서도 “막상 교재를 받아보니 필수교양에 필요한 교재를 받는 것도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부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은 교재의 별도 보관 및 유보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는 “배부 시작일(4일)에 1,111부가 소진된 이후 남은 약 1,600부의 배부 속도가 부진하다”며 “졸업 전 꼭 들어야 하는 교양 과목인 만큼 신입생이 모두 교재를 찾아가 도움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6 종합

의대 '더블링' 해법 찾나 제1의학관 첨단강의실 수업 몰입도 개선 기대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의과대학이 제1의학관 5층에 첨단강의실을 조성한다. 의정갈등 이후 두 학년이 한 학년에 몰리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의과대학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의대생 유급과

복귀가 이어지면서 학년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 의예과는 24학번과 25학번이 2학년에 함께 재학하는 구조이며, 두 학년을 합친 인원은 약 154명에 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는 지난 학기부터 '미러링 강의'를 운영해왔다. 미러링 강의는 강의실을 두 곳으로 나눠 한 곳에서는 교수가 대면



제1의학관 대형 첨단강의실 조감도

(사진=의과대학 제공)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강의실에서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의예과 오동인 학과장은 "미러링 수업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학년 간 분리를 요청하

면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업 몰입도에 차이가 있어 대형 첨단강의실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조성되는 첨단강의실은 학생 자율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던 제

1의학관 502·503·504호를 통합해 마련한다. 총 155석 규모의 대형 강의실로 대형스크린, 강의녹화시스템, 강사 추적 카메라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의대 행정실은 "첨단강의실에선 기존 방식의 강의뿐 아니라 강의실 간 미러링 강의, 캠퍼스 간 원격강의 등 다양한 유형의 강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4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은 이외에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 학과장은 "작년에는 더블링 학년 학생들과 면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학생대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식 소통 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과 지속적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OTC

그 자체가 스펙이다

리더십, 체력, 해외연수 등 육각형 인재의 완성

모집기간

: 2026.3.3.(화)~2026.4.26.(일)

모집대상

: 남녀 1, 2학년 재(휴)학생

지원대상

: acq.armyofficer.mil.kr

경제적 혜택

: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등 약 2,000만원 지급

* 대학교 장학금 등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문의

: 경희대 학군단 02) 961-0085~6

모바일홍보



지원서접수



의예과 계절학기 수강신청 허용학점 상향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6학년도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허용학점이 12학점으로 한시적 상향 적용된다. 이는 의정갈등 여파로 발생한 의예과 학생들의 의학과 진학에 필요한 필수 학점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일 개정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5조에 따른 조치다.

의예과 학생이 의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공 55학점과 교양 26학점을 포함한 총 8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의정갈등으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가 장기화됐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며 졸업학점을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교양 과목 문제가 심각했다. 의예과 오동인 학과장은 "전공과목은 의과대학 내부에서 운영되지만, 교양과목은 휴마니타스를 통해 공통 진행되는 별도 학사일정이기에 계절학기 학점 상향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학기 의대의 연장된 전공수업 학사일정과 교양교과목의 동계 계절학기 개설 시기가 병행돼 부족학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은 계절학기 이수 한도 상향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태운희 팀장은 "의대 교육 기간 단축은 불가하나 수강 과목 및 허용 학점 등을 조정해 정상 수업을 지원하라는 교육부의 방침과 의대 학생들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책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계절학기 학점 상향이 교육의 질 하락이나 학습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절학기 저녁 시간대 추가 강좌 개설이나 개강·종강 조정 등 운영을 조정한 계획이다. 의과대학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 학과장은 "다행히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의예과의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휴마니타스 및 유관부서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정규 학기에도 부족한 교양학점 이수가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내년 3월 신입생 입학 전까지 교육과정 정상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태 팀장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지원팀과 의대가 노력 중"이라며 "신입생이 입학하는 3월 이전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최대한 정상화하고, 9월부터는 교육과정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변에서 다 하니까” 포모 심리에 뛰어드는 대학생 투자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조동현(신소재공학 2021) 씨는 “주변에서 주식 얘기만 해서 안 하면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을 받아 시작했다”고 투자를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연일 국내 증시가 뜨거운 가운데 학생들 또한 주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학내 포모(Fear Of Missing Out)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 포모 현상이란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청년층 투자 열풍으로 이러한 유행의 흐름에 편승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6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트렌드’에 따르면 2세대의 금융자산 중 투자·가상자산 상품 예치 비중은 지난해 26.3%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열풍은 학내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학교 중앙 주식경제동아리 ABS 회장 최석훈(경영학 2020) 씨는 “이번 동아리 모집 기간에 대략 100명 가까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금융기관의 도움을 빌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일명 ‘빚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미비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아 투자한다. 김경민(한국어학 2021) 씨는 “인턴을 하면서 번 돈과 생활비를 모아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군대 적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경서(원자력공학 2021)씨는 “투자금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군적금을 꺼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현재 군대 복무 중인 A씨 또한 “주변 군인들 모두 핸드폰을 받으면 주식 시장부터 확인한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빈기범(경제학) 교수는 이러한 심리적 동요가 주식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이라고 분석했다. 빈 교수는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가만히 있는 자신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불안이 결국 공격적인 투자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두고 “과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예외 없이 조정이 뒤따랐다”며 “불안감으로 인해 생각 없이 무리해서 돈을 투자하는 방식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최근 주식 시장은 코스피 6000 달성이라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전쟁의 확산 여부와 국제 유가 급등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외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변동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증시 전반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세 분석 없이 무작정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사실상 ‘투기’와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리한 투자는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ABS에서 스터디 팀장을 맡고 있는 신민준(정치외교학 2023)씨는 “주변인들 중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 돈을 잃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며 “며칠만에 몇 백만원의 손실을 겪은 학생도 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가 투기 문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을 위한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은 “자본 투자가 필수가 된 시대지만 단기 수익을 좇는 무리한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에 취약한 만큼 개별 종목에 집중하기보다 ETF나 펀드와 같은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기에 최소 30년은 더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금융 시장에 발을 들여 자산 일부를 위험 자산에 노출해 보는 경험은 미래에 본인만의 탄탄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주째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며 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진=원희재 기자)

오르는 기름값에 학생들도 한숨 대중교통 불편...선택지도 좁아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저렴한 주유소는 항상 줄을 서야 하고, 휘발유가 품절인 경우도 있었어요”

차를 운전해 통학하는 김규태(기계공학 2024) 씨는 주유를 위해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줄을 서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경희주유소 직원 A씨도 “유가가 오르면서 조금이라도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2주째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며 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이 낮아 차량통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최근 교내 주차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주차공간 부족문제로 정기주차권 총량제가 실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달 9일 기준 국제 원유가격은 985원 수준으로 전쟁 발발 전인(지난달 27일 기준) 629.4원보다 56.5% 상승한 수치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공개시스템 ‘오피

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1693원에서 지난 10일 기준 1907원으로 약 12.6% 상승했다.

학생들은 차량 통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불편한 교통편과 높은 월세를 꼽았다. 차량 통학을 하는 장우영(원자력공학 2023)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 자취도 고민했지만 월세 부담이 커 결국 차량 통학을 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맵 기준 장 씨의 통학 시간은 차량 이용 시 약 58분이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평균 1시간 28분이었다.

오지수(전자공학 2024) 씨 또한 “본가와와 직선거리가 멀지 않지만 대중교통 노선이 돌아와서 차를 끌 때보다 한 시간 이상 더 걸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석유제품 시장 구조상 유가 상승이 학생들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름값은 국제유가뿐 아니라 환율과 국제정세, 유류세 등의 영향을 함께 받아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허은영(자원경제학) 교수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 상승 등 국제 시장의 불안심리로 반영돼 변화폭이 크고 변수도 많은 구조”라며

“기업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싼 가격으로 석유를 대량구매해 선제 대응할 수 있지만 차를 모는 학생들은 주 단위로 기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장태훈 박사도 “최근 석유에 대한 기대수요가 늘어난 데다 전쟁으로 국제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기름값 상승 폭이 과거 오일쇼크 때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며 “학생들의 경우 생활비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 상승세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허 교수는 “만약 전쟁 중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파장의 오일 쇼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지난 7일 SNS를 통해 이란 테헤란 인근의 정유 시설을 타격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제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 씨는 “이번 사태로 언제 다시 또 기름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8 문화

짧아진 주기...청년 소비문화도 달라졌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적시 소비 확산

서러수 기자 sooxoosoo@khu.ac.kr

《문화트렌드 연속 기획》
⑨ 적시 소비 트렌드

청년 · 학생의 문화 트렌드 아홉 번째 기획으로, 우리신문은 최근 빠르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유행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소비 문화를 살펴봤다.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행을 접하고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특정 상품이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는 경험과 공유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우리신문은 학생들을 만나 변화하는 유행 속 청년 세대의 소비 문화와 의미를 들여봤다.

짧아진 유행 주기 SNS 확산 속도로 바뀌는 소비 흐름

최근 SNS를 통해 특정 음식이나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탕후루와 두바이 쫄쫄쿠키(두쫄쿠키)는 SNS에서 화제가 되며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다른 콘텐츠가 등장하면 관심은 금세 이동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4년 출시된 ‘허니버터칩’은 제품 냄새를 담은 봉지가 판매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으며 장기간 인기를 이어간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에는 523억 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2024년까지 누적 3억 6,000만 봉지가 판매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반면 최근 유행은 확산 속도만큼이나 식는 속도도 빠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두쫄쿠키 판매량은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11만 2,000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약 두 달 만에 8만 8,000건 수준으로 줄었다.

‘두쫄쿠키 오픈런’ 경험이 있다는 이진이(미디어학 2020) 씨는 “한창 유행했을 때보다 사먹는 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하는 SNS 유행 음식의 시작은 ‘허니버터칩’인데 그때보다 요즘은 유행이 훨씬 빠르게 생겼다 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중백(사회학) 교수는 “방송이나 신문처럼 매체가 제한됐던 과거와 달리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콘텐츠의 양과 선택지가 늘어나며 새로운 유행이 기존의 유행을 빠르게 대체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유행 주기를 단축시킨 것이다.

‘지금 아니면 놓친다’는 소비 심리 청년 세대의 ‘적시 소비’ 확산

이처럼 빠르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유행 속에서 청년 세대의 소비 방식 역시 변하고 있다. 특정 상품을 오래 소비하는 게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유행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적시 소비’ 경향을 보인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 「Z세대 트렌드 2026」에 따르면 2025년 제철 관련 언급량은 7만 1,423건으로 2022년 4만 2,096건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특정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의 향유가 청년층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리더십 경영학부 김의신(경영학)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콘텐츠 확산 속도에 따라 ‘지금 경험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다’는 심리가 형성돼 유행에 더 빠르게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시 소비는 특정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인 팝업스토어나 한정판 제품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오픈한 팝업스토어는 총 3,077개에 달했고, 7일 이하 단기 팝업 비중은 전년도 대비 11.93% 증가했다. 잠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역시 더 짧은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진이 씨는 “인기가 많은 가나디 팝업스토어는 방문하기 위해 티켓팅을 했다”며 “미리 예약을 못 한 친구는 결국 팝업 기간 내 입장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강주희(의상학 2024) 씨는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희소성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특히 한정판 굿즈는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① 지난 겨울 크게 유행해 대기줄 행렬을 만들기도 했던 ‘두바이쫄쫄쿠키’의 인기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② ‘두쫄쿠키’ 인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새로운 유행 음식인 ‘버터떡’이 진열되고 있다. (사진=서러수 기자)

소비를 넘어 ‘경험과 연결’의 문화로 유행 콘텐츠가 만드는 새로운 문화

이러한 경험은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김정연(사회학 2024) 씨는 “유행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사회가 개인화되며 청년들이 속할 수 있는 견고한 공동체가 많이 줄었는데 특정 유행에 대해 한마디 없는 행위만으로도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무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소비하는 층도 있다.

이관우(수학 2021) 씨는 “트렌드에 참여할 때 내 취향과 맞춰 가보는 경험 자체에 즐거움이 있다”며 “약 40개의 스타벅스 시즌별 텀블러를 모아 매일 다르게 사용했는데 유행이 끝나도 내게 지속적인 흥미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소비한다”고 했다.

유행 소비는 때로 조급함과 소외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강 씨는 “친구에게 ‘나만 모른다’는 소외감에 더 조급하게 소비하게 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국 특정 상품 자체에 대한 열망이

아닌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열망이 해소되는 순간에 소비를 멈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행 소비가 소속감 및 불안감과 직결되는 이유는 관계 형성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김중백 교수는 “과거에는 친구나 학교 같은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특정 콘텐츠 경험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의신 교수는 “앞으로 청년 세대의 소비는 제품 자체의 기능 뿐만 아니라 경험, 이야기, 사회적 공유 가능성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K-DX' 정식 가동 통합된 데이터 시각화...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대학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K-DX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이 도입됐다. 교직원과 연구자는 K-DX를 행정 및 연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시스템은 추후 개발 예정인 학생성장 플랫폼과 연계할 예정으로, 학생들도 취업/진학, 장학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DX추진단이 13일 정식 오픈한 해당 시스템은 교직원 및 연구자 효율성 향상과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기존 시스템은 부서별 업무 처리 중심으로 설계돼 교무, 학사, 산학, 연구 등 주요 데이터가 파편화되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학 전체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K-DX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산재된 데이터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시각화함으로써, 경영진과 의사결정자들이 필요한 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대학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스(DW)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현재 K-DX는 ▲연구 ▲학사 ▲일반 ▲임포트로 구성된 총 143개의 데이터마트(DM)를

구축해 방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연구현황, 교육여건, 일반현황 등 핵심 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DX추진단은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투명한 성과관리와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식 오픈 이후에도 예측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등 고급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DX추진단은 "143개의 DM에서 시작해 대학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분석 시스템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K-DX를 통한 데이터 기반 대학운영의 정착은 교육과정 개선 및 학생 지원 정책 혁신, 연구 지원 체계의 개선 등을 견인하며 대학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관, 역사가 된 경희 건축물

경희기록관 남기원

경희의유산⑩
「서울캠퍼스 본관1」

서울캠퍼스 본관이 올해 완공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건물이 캠퍼스 곳곳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본관은 역사적, 미학적, 상징적 의미에서 경희 최고의 건축물이다. 등용문을 통과해 교시탑을 지나서야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한 공간 배치 또한 본관이 경희의 중심임을 의미한다. 이렇듯 본관이 경희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이유는 시작부터 그렇게 구상되었기 때문이다.

본관 공사는 1953년 11월 24일 기공식을 거행하며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 3년 동안 머물렀던 피난지 부산을 뒤로하고 회기동 일대를 교지로 정한 직후였다. 부산 임시교사 시절에 정립한 경희의 이상을 펼칠만한 교지를 선택한 후 처음 세우는 건물이자, 경희의 사명과 미래를 담아야 기획하고 구현한 사실상 최초의 건물이 바로 본관이다. 그러므로 '본관 기공식'은 단지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행사가 아니었다. 경희의 새출발, 새 역사를 알리는 '비전 선포식'이었다.

이러한 의미와 상징을 생각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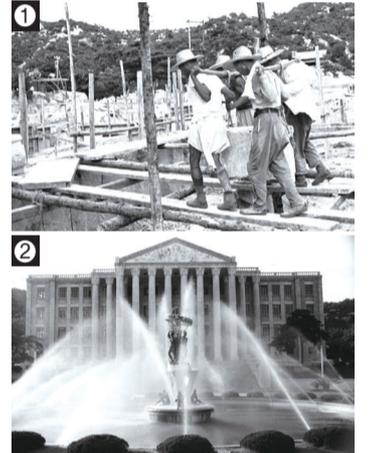
숭고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의 그리스 신전식(神殿式) 석조건물을 본관의 건축양식으로 선택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고향산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되던 채석장이 있어 석재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4층 높이 3,800평 규모의 웅장한 석조건물을 순수 우리 기술로 짓겠다는 계획은 당시 형편을 생각할 때 무모한 사업이 분명했다. 정부도 제대로 된 청사 하나 갖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서, 작고 가난한 신생대학이 이런 웅장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재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수

억이 드는 공사비에 비해 학교의 잔고는 불과 8만 환에 불과했다. 경험과 기술도 문제였다. 우리나라에서 석조 건물 공사를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시행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초공사 기술이 부족해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빈번했다. 석재를 운반하는 수단이 없어 통나무와 수레 같은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기중기가 마땅치 않아 공사장 근처로 운반된 석재를 인부들이 목도를 매고 한층한층 쌓아 올려야 했다.

1956년 8월 20일 드디어 본관이 완공되었다. 경희의 역사와 함께 할 건물, 미래에 시선을 두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경희의 정신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이후 경희인의 자랑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2018년 12월,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건축 양식과 미학적 측면에서 역사에 남을 문화재로 인정받은



①완공일만 기준으로 하면 1954년 3월 22일에 완공된 신문방송국 건물이 가장 이릅니다. ②웅장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작았다. 본관은 1975년 중축 공사로 양쪽 날개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것이다. 이제 본관은 경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 것이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2023년부터 3년 연속 2관왕에 올랐지만 모든 종목을 휩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허 선수는 "첫 4관왕이 동계체전이라 기쁘다"며 기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사진=허 선수 제공)

전국체전 알파인스키 4관왕 허도현 선수

“아버지처럼 레전드로 기억되고 싶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는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눈다. 열 번째 주인공으로 지난달 27일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알파인스키 4관왕을 이룬 허도현(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국체전 싸움이 4관왕 비결은 '긍정 마인드'

“아직도 스키가 너무 재밌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항상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지금 제가 스키를 잘 타는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좋은 성적의 비결이라는 허도현 선수가 지난달 27일 동계체전 알파인스키 4개 세부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2관왕에 올랐지만 모든 종목을 휩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허 선수는 “첫 4관왕이 동계체전이라 기쁘다”며 기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주 종목인 회전뿐 아니라 슈퍼대회전, 대회전, 복합까지 모두 석권했다.

여러 종목 중 회전을 주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허 선수는 “언제나 회전 종목 성적이 가장 좋았다 보니 더 재밌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회전의 최강자가 된 것에 더해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도 참여한 대회전 시험에서도 4위를 했다. 허 선수는 “대표팀 형들과 성적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며 다른 종목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22살인 허 선수는 이미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경험이 있다. 이번 2025-2026시즌엔 상비군에 포함된

그는 2024-2025시즌엔 국가대표팀 7인에 속했다. 이번 시즌엔 포인트 1점 차로 아쉽게 탈락했지만 이 역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허 선수는 “물론 아쉬웠지만 대표팀에서 나와 있으면서 성적도 잘

나와서 오히려 리프레쉬하는 1년이 됐다”고 돌아봤다. 현재 성적 상 다음 시즌부터 다시 대표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태극마크를 다는 건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이라며 “다시 합류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버지와 함께했다는 허 선수는 “아버지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이뤄낸 게 많았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사진=허 선수 제공)

말했다.

‘금메달 2회’ 전설의 아들 “아버지는 없어선 안 될 사람”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스키 19년 차다. 스키를 처음 신었던 건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 4살 때인데, 그 배경엔 아버지 허승욱 코치의 영향이 컸다. 올림픽 5회 출전자인 허 코치는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최고 성적인 21위를 기록했고 아시안게임에선 2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5개 메달을 보유한 전설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그의 전담 코치였다. SNS 게시물에서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허 선수는 “항상 내 편이고 너무 편한 친구 같은 아버지”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스키를 탈 땐 엄격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라고 덧붙였다. 전설인 아버지의 존재가 어린 허 선수에게 그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허 선수는 “어렸을 땐 어딜 가도 ‘네가 허승욱 아들이구나’, ‘아버지처럼 돼야지’ 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젠 익숙해져서 괜찮다”며 “오히려 아버지 기록을 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버지와 함께했다는 허 선수는 “아버지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이뤄낸 게 많았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아버지와 정동헌 선수처럼, “레전드로 기억되고 싶다”

아버지 외에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며 허 선수는 대표팀 동료였던 정동헌 선수를 언급했다. 대표팀의 만형인 정 선수는 37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아시아 랭킹 1위다. 허 선수의 최종 목표는 것처럼 언젠가 랭킹 1위를 석권하는 것이다. 그는 “언젠가 그 자리에 선 뒤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는 동현이 형처럼 30대까지도 몸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당장의 목표는 내년 세계대학경기대회 메달과 다음 동계 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이다. 그는 “전세계에서 잘하는 대학생 선수들이 모두 모이는 대회에서 메달을 걸고 싶다”고 말했다. 개최지가 중국인만큼, 컨디션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허 선수는 “아버지나 동현이 형처럼 레전드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 대표팀 막내 나이대지만 후배 양성에 대한 생각도 꺼냈다. 허 선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후배들에게 최대한 코치 역할을 잘하면서 좋은 형으로 남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설

무너진 연대를 다시 세우려면

5회차에 걸친 '청년극우 연속 기획'을 마무리한다. 1회차 「'땀'처럼 소비되는 혐오, 내 안의 극우를 깨우다」를 발행했을 때 독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특히 우리신문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다.

각오하고 시작한 연속기획이지만 예상했던 것 이상의 반응이었다. 우리신문에서 했던 설문조사에서 '극우' 또는 '극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특정 정당·정치 세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만큼,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기획 의도는 그와는 다른 방향이었다. 정치적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타자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배척을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정서에 대해 취재하고 싶었다.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수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우리가 예전만큼 대화하고 토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감한 사회 문제에 대해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는 '예'보다 '아니오'에 가깝다.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그 대화가 대인관계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생긴다. 이러한 사회적 양상이 이어지면서 상대의 생각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밝히는 것도 꺼리는 사회가 됐다.

우리신문 설문조사 응답자의 65.3%는 일상 언어와 온라인 문화, 청년 세대의 정서 속에서 혐오와 차별적 언어 사용이 가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에 동의했다. 극단적인 정서로부터 나오는 혐오 표현은 점점 정도가 심해져 서로

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혐오 표현을 들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피로감이 쌓인다.

일상에서 범위를 넓혀보면, 배척하는 태도와 타자 혐오의 정도가 심각해질수록 민주주의는 불안해진다.

극우 정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합의에 균열을 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린다.

합의 없는 정치권력이 탄생할 수 있고, 그에 저항하려고 해도 손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 일상에선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얼마든지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진짜 큰일이 나기 전에,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당장 대학생들에게 어제와 다르게 오늘부터 활발하게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연대 의식을 마음속에 지니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학을 포함한 교육계부터라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절실하다.

3개월 간 취재하며 우리는 대화와 토론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연대의 상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혐오가 확산되고 타자를 적으로 보게 된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쉽지 않았지만 존중을 전제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듣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타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와 '우리'를 위해, 이제라도 대화하고 뭉쳐야 한다.

세시봉

일상으로의 유배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얼마 전 영화관을 찾았다가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상영관이 빈자리 없이 관람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영화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이 작품은 누적 관객 1200만 명을 돌파하며 기록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문득 사람들이 왜 이토록 왕사남에 열광하는지 궁금해졌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 6대 왕 단종이 폐위된 뒤 영월로 유배돼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시간을 담담히 따라간다.

극의 흐름은 잔잔하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일상적인 장면들이 주를 이루며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전투 장면이나 권력자의 화려한 모습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결말 또한 자극적인 반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비슷하게 전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영화에 몰입해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잠시 잊고 있었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빠르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다. 숏폼 콘텐츠와 OTT 플랫폼의 대량 소비가 그 방증이다. 도파민 추구 시대에서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반대일지도 모른다. 쉽없이 쏟아지는 자극은 사람을 쉽게 흥분시키지만 순간적이다. 우리는 순간에 속아 일상 속의 정서를 잊고 있던 것이다.

어쩌면 관람객들은 사회 갈등에 지쳐 평범한 삶을 원했던 어린 소년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평범한 삶 속 여유가 주는 위로가 필요할 때다.

"나오리..왜 그러셨습니까..왜 혼자 짊어지셨습니까" 극 중 단종을 보필한 엄홍도의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고자 한 이 대목은 눈물샘을 자극했다. 평범한 삶은 결코 하찮지 않다. 자극적인 요소가 흥행할수록 평범한 삶에 대한 의미는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평범한 일상이다. 잠시 바쁜 일은 제쳐두고 주변 사람과 일상을 돌아보는 마음의 유배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문지마 투자의 위험성

신중해야 할 투자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마이너스 100만원. 누군가에게 작은 금액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생인 나에게는 난생 처음 겪는 큰 손실이었다.

작년 5월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나는 "곧 주가가 떨어진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증권사 거래량 1위였던 테슬라 인베스 ETF를 매수했다. 기대와 달리 내가 마주한 것은 가파르게 떨어지는 파란색 차트였다. 이후 나는 한동안 주식 창을 열어보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야말로 주식 열풍이다.

전문가들은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현 상황을 '포모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설명한다. 별도의 노동 없이

주식 투자로 남들이 큰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청년들을 주식 시장으로 떠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원의 김민기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과잉 확신이나 포모(FOMO) 심리 같은 행태적 편향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위기에 휩쓸려 시장에 진입하는 행동을 꼬집은 것이다.

최근 주식 시장은 분 단위로 요동친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만 280 포인트(약 5.3%) 이상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경제 상황과 시장에 대한 분석 없이 높은 수익을 얻는 요행을 바라는 태도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구조에 있다. 투자는 공부와 분석 위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를 가진다. 그저 흐름만을 좇는 문지마 매수는 투자 초보에 가까운 학생일수록 문지마 투자의 유혹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평 포모에 밀려 뛰어내린 낭떠러지 끝에서 투자는 철저한 분석이 필수임을 100만 원의 대가로 깨닫는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12 사람



왼쪽부터 이진형, 고아라 씨. 고고학 박사가 전하는 오해① “고생물학(고생물을 대상으로 함)과 고고학(인간을 대상으로 함)은 다릅니다. 우리 고고학자들은 공룡을 발굴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탄생이래 함께한 가축, 야생동물이면 모를까요?” 고고학 박사가 전하는 오해② “발굴 현장에서 황금 유물이나 값비싼 유물이 나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는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유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므로, 우리 연구자들에게 유물은 어디까지나 연구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이지수 기자)

던 중 사학과와 4단계 BK21 지원 사업과 소속 연구소의 글로벌인문 사회과학연구소 지원사업, 그리고 교내 장학 제도인 경희학부우수졸업생장학 등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안정적으로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우리 학교 박사 과정 진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금 독립 연구자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은 길고 지난하며, 끝에 도달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연구를 이어가게 하는 힘은 역시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취와 즐거움’이다. 이 씨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연구를 통해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결과물로 완성될 때 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며 “순수하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찾는다면 연구만한 것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씨 역시 “지식이 조금씩 쌓여간다는 감각을 느낄 때 큰 뿌듯함이 있다”며 “하기 싫은 일들 가운데서는 연구가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구자로서의 공부’ 신중히 고려하길

두 사람은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부생에게 ‘연구자로서의 공부’를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조언을 남겼다. 고 씨는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학생의 입장에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세우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단순히 공부가 재미있어 보여서 선택하면 생각보다 훨씬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학·고고학 분야에서는 사소한 질문이 많은 사람이 대학원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유물을 보면서 왜 여기에 구멍이 하나 더 있는지, 왜 비슷한 유물인데도 형태나 수량이 달라지는지 등의 질문들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고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꺼내 쓸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기까지, 뇌는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씨름해야 한다. 때로는 몸으로 부딪히고 굴러가며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모두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 연구로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고아라 씨는 암각화를 통해 고대 사회의 생계 방식과 교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진형 씨는 드론을 활용한 유적 원격탐사와 공간 분석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각자의 연구 분야를 확장하며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구, 순수하고 의미 있는 즐거움”

지식 배우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공부하는 사람들① 고고학 전공

#학부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 앞에 선다. 이중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삶’은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적 공공재가 된다. 이번 학기 대학주보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사학과 고고학 전공 고아라(박사2기), 이진형(박사1기) 씨다.

학부와는 다른 대학원 공부 지식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고아라 씨에게 고고학은 늘 ‘다름’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그는 “과거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달

랐을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 늘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특히 고 씨는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과 ‘유목하는 삶’에 큰 관심이 있었다. 그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때마침 사학과 강인욱(고고학) 교수가 고 씨의 대학이 있던 김해로 강연을 왔고, 고 씨는 그때의 인연을 계기로 우리 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이진형 씨는 학부 1학년 때 고고학회에 들어가며 지도교수였던 강 교수를 처음 만났다. 원래부터 고고학에 관심이 있었던 이 씨는 강 교수를 따라 몽골 현지 유적 조사 등에 참여하며 연구자의 꿈을 구체적으로 키워갔다. 그러던 중 “진형이는 드론을 해보자”는 강 교수의 제안이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이 씨는 “아직 많은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연구 분야를 개척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의 제안이 석사 연구 주제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학부 시절부터 ‘전공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험도, 각오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들에게 펼쳐진 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학부 수업이 선행 연구가 만들어낸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었다면,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그 지식이 정말 타당한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석사 과정에서 연구 주제를 세 번이나 바꿨다는 고 씨는 “지식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괴리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지식이 늘면 늘수록, 오히려 무엇 하나 쉽게 ‘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진다. 이들 또한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배워가는 시간에 가깝다고 했다. 고 씨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며 이제야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다”며 “본인의 전공이 있을 텐데, 그 조그만 부분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결국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주거·장학 해결이 공부할 결심으로 이어져

두 사람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고아라 씨는 주거 문제, 이진형 씨는 장학 문제가 해결되면서 공부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서울 상경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고 씨는 다행히 경기도 지역의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고 씨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아무리 커도 당장 생활이 불안하면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소속 연구소가 인문계에서는 드물게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생활비를 보전 받으며 연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적 현지조사 방법론으로 ‘드론 원격탐사’를 택한 이 씨는 석사 졸업 이후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영미권과 유럽 학계에서 해당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 이동 경비 등 현실적인 부담이 컸다. 그러